



미국 사이버보험시장 최근 동향

이소양 연구원

2019년 미국 사이버보험시장 규모(원수보험료 기준)는 기업에 대한 사이버 공격 증가에 따른 수요 확대로 전년 대비 10.9% 증가한 22.5억 달러를 기록함.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코로나19 관련 피싱 메일 공격이 증가하고 재택근무 확대에 따른 사이버 공격 리스크가 커지면서 사이버보험 수요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2019년 미국 사이버보험시장 규모(원수보험료 기준)는 기업에 대한 사이버 공격 증가에 따른 수요 확대로 전년 대비 10.9% 증가한 22.5억 달러를 기록함)
 - 2019년 사이버보험 원수보험료가 증가한 이유는 랜섬웨어를 포함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사이버보험 가입이 늘었기 때문임
 - 2019년 미국에서 금융기업, 헬스케어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이 다수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의 사이버보험 가입 건수는 334만 건으로 전년 대비 14.9% 증가함
 - 사이버보험 가운데 특약 형태로 사이버 위험을 보장하는 종합보험 상품보다 사이버 위험만을 보장하는 단독형 상품의 성장세는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단독형 상품 원수보험료는 12.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0% 증가했으며, 전체 사이버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1%로 2018년에 비해 1.5%p 상승함
 - 반면 종합보험 상품 원수보험료는 9.9억 달러로 전년 대비 7.2% 증가했지만, 전체 사이버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45.4%에서 43.9%로 하락함
- 사이버보험시장의 상위 20개사는 83.9%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했지만 신규진입회사 증가로 2018년에 비해 1.6%p

1) 이하는 A.M. Best Week(2020. 7), "Cyber Insurance: Profitability Less Certain as New Risks Emerge"를 발췌, 요약함
 2) 해커들은 금융기업, 헬스케어기업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랜섬웨어를 이용해 금전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탈취한 데이터를 다크웹을 통해 판매하기도 함. 사이버 공격에는 랜섬웨어 외에도 피싱, 불안정한 무선 와이파이 및 디도스 공격 등이 있음

소폭 하락함

- 미국 전국보험감독자협의회(NAIC)에 따르면 2019년 말까지 사이버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회사 수는 192개로 2018년에 비해 8개사가 증가함³⁾
- 한편, Chubb(15.9%)는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AXA XL(10.2%), AIG(10.0%)는 각각 2위, 3위를 차지했지만, 이들 상위 3개사의 2019년 시장점유율은 36.1%로 2018년에 비해 3.9%p 감소함

■ 사이버보험의 손해배상 청구 건수는 단독형 상품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전체 사이버보험의 손해율은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됨

- 2019년 사이버보험 손해배상 청구 건수는 1만 8,651건으로 2017년 9,017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함
 - 단독형 상품의 손해배상 청구 건수는 2017년 3,939건에서 2019년 9,940건으로 2.5배 증가했는데, 이로 인해 전체 사이버보험 손해배상 청구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3.7%에서 53.3%까지 상승함
- 2019년 사이버보험의 손해율은 손해배상 청구 건수가 증가하면서 44.9%로 2017년에 비해 12.5%p 상승했지만 여전히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됨⁴⁾
 - 2019년 단독형 상품의 손해율은 47.1%로 전체 사이버보험의 평균 손해율(44.9%)보다 2.2%p 더 높음

■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코로나19 관련 피싱 메일 공격이 증가하고 재택근무 확대에 따른 사이버 공격 리스크가 커지면서 사이버보험 수요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⁵⁾

- 코로나19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악용해 세계보건기구(WHO)나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를 사칭한 피싱 이메일이 급증함⁶⁾
 -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는 코로나19와 관련 피싱 이메일 수량이 지난 3월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함
- 미국에서 기업들이 코로나19를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사이버보안을 고려하지 않는 재택근무 시행은 기업의 사이버 위험 노출을 증가시킬 수 있음
 - 회사 외부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개인 컴퓨터 혹은 일반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보안위험이 높음
-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진 기업에서 해고된 직원이 영업비밀과 같은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할 가능성이 있음 **kiri**

3) Reinsurance News(2020. 6), "US cyber insurance market's loss ratio up 10% on claims frequency: Aon"; 여기서 말하는 사이버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회사 수는 미국 전국보험감독자협의회(NAIC)에 사이버보험 판매 실적을 보고한 미국 손해보험회사 수를 기준으로 집계된 수치임

4) AON(2020. 6), "US Cyber Market Update"

5) A.M. Best Week(2020. 5), "COVID-19 Impact on the Insurance-Linked Securities Market"

6) 미국 존스홉킨스대 코로나19 통계 사이트는 <https://coronavirus.jhu.edu/map.html>임